

23.6.26.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두 발언

2023. 6. 26. (월) 15:3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의 국가산업전략 지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산업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금융 공급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지난 2월 협의회를 통해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집중할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총 9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집중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실적 둔화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하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최근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잠재력 있는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II. 금일 정책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협의회 선정 주요전략분야에 공급한
자금공급 실적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협의회 선정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 7.4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지원 : 9.5조원 ③ 산업구조
고도화 : 10.0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 7.5조원 ⑤ 기업경영애로 해소 : 11.9조원

연간 목표치 대비 집행률은 50.5%로서,

아직 6월 한 달 실적이 미반영되었음에도

상반기 공급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집중하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자금공급 흐름을 늦추지 않고

우리 산업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별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우대자금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핵심 우수기업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책상품보다
더욱 우대된 수준으로 자금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협약식을 체결한 반도체생태계 펀드의 경우,
연초 마련한 91조원 공급목표에는 빠져 있지만
정부부처 제안에 따라 협의회에서
새롭게 발굴한 협업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각 정부부처가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과제들이 있는 경우,
기존에 발표한 91조원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Ⅲ. 하반기 우리경제의 대응과제 및 정책금융의 역할

하반기에는 우리경제의 빠른 반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갖고 정책금융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❶ 첫째, 수출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출기업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신용장 등의 이용조건을 개선하고,
주요국의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여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품목에 대한 R&D나 신규설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❷ 둘째,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시 시장 선점이 가능하도록,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첨단산업에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있으나,

미국의 Chips법* 등 주요국의 자금지원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습니다.

* 총 527억불(약 65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근거 마련

③ 셋째, 딥테크나 탄소중립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신기술 및 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경제 체질개선에 필요한 금융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가용재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중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IV. 맺음말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담당 부처인 금융위와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업담당부처 간 협업이
앞으로도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라는 좋은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